

大巡眞理의 目的에 관한 研究(Ⅱ)

- 地上神仙實現 · 人間改造를 中心으로 -

金錫罕*

目次

I. 序論	2. 近代 東學의 神仙思想
II. 神人關係의 展開와 發展樣相	IV. 大巡眞理의 地上神仙
1. 上古時代의 神人關係	1. 神人關係와 地上神仙
2. 道敎의 神仙思想과 儒敎의 天人合一思想	2. 地上神仙의 方法
III. 韓國의 神仙思想	3. 地上神仙의 意義
1. 古代의 神仙說	V. 結論

I. 序論

종교는 장차 도달하게 될 이상세계와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한다 대순진리에서 제시한 선경세계는 사후가 아닌 현세에서 하늘이 아닌 지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대순진리의 목적 중 하나가 지상신선실현과 인간개조이다. 지상신선은 인간이 성숙 변화된 모습이고 인간개조가 이루어 질 때 지상에 선경이 건설될 것이다. 두 개념은 그 내용면에서 동일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지상신선을 중심으로 고찰해본다.

역사적으로 신선은 동양에서 인간이 상상하고 염원했던 존재이다. 신도 아니고 인간과도 다른 신선을 왜 그토록 동경해왔는가? 그리고 그것은 꿈속의 모습에 지나지 않는가? 대순진리에서는 상상의 대상만이 아니라고 말하

* 대순종교문화연구소 연구위원

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이러한 점들을 목적으로 역사적으로부터 고찰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대의 신인관계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전개와 발전양상을 도교와 유교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유교와 도교는 신인관계의 설정과 그 소통방법에서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이점은 상고시대의 형성된 문화와 그 발전 형태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한편 한국의 고대의 고조선시대나 신라시대에도 강력한 신선사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동이족은 신에 대한 공경한 자세, 선인에 대한 동경이 남달리 강했던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이 사상은 근대 동화가 출현하면서 그 동안 도교와 민간 신앙에 습합되어 있다가 표출하는 계기를 맞는다.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하여 대순진리의 지상신선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그래서 본 고에서는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대순진리의 이상적 신인관계와 지상신선의 방법, 의의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II. 神人關係의 展開와 發展樣相

1. 上古時代의 神人關係

중국의 상고사를 역사시대로 편입시키는 문제는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그러나 고고학의 발전에 힘입어 하나라와 은나라에 대한 존재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은나라는 은허의 대규모 발굴로 다수의 갑골문자가 해독되면서 그 사실성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상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중국고대문화와 민족의 분포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상고사가 면면들도 들어나기 시작하였다. 상고시대 민족의 분포현황은 크게 3부족이었다고 한다. 부사년의 '夷夏東西說'은 화하, 동이 및 남방의 묘만이 그 삼대집단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동한 말기 이후의 중국사는 늘 남북으로 구분되어 왔지만, 3대(하은주) 및 그 이전시대는 동서의 구분만이 있었고 남북의 경계는 없었다고 하였다. 즉 夷와 商은 동쪽 계통에 속하며, 夏와 周는 서쪽 계통에 속한다고 주장하였고, 이후 이설은 화계

에 받아들여져 왔다.¹⁾

이 3개부족이 충돌하고 혼합도 하면서 발전을 하게 되면서 고대문화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하 은 주 이전 시기인 전욱(顓頊)시대에 원시종교개혁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자료는 선진시대의 國語나 尙書 등에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상고시대의 신인관계의 한 단면을 알 수가 있다.

소왕이 관사부에게 물었다. “<周書>에 이른바 重黎로 하여금 천지를 통하지 않게 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백성이 장차 하늘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인가? 관사부가 대답하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백성과 신이 서로 섞이지 않았습니다.(民神不雜) 그래서 백성들이 총명하고 맑아서 만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신명이 이러한 사람에게 강림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남자를 격, 여자는 무라고 하였습니다… 백성과 신은 각기 본분이 다르므로(民神異業) 공경하면서도 모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복을 내려주고 백성은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에 재앙과 화가 이르지 않고 재물이 모자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호씨가 쇠했을 때에 이르러 구려가 덕이 문란해지고 백성과 신이 서로 뒤섞여지게 되었습니다.(民神雜揉) 이때는 집집마다 무사가 되어 백성과 신이 서로 구분이 없었습니다.(民神同位)… 이후 전욱이 제위를 이어 받자… 옛 모습을 되찾아 서로 혼란됨이 없도록 하였으니, 이를 일러 하늘과 땅의 소통을 끊었다고 하게 된 것입니다.(絕地天通)²⁾

이에 중과 여에게 명하여 인간과 하늘 간의 통로를 단절하게 하였다. 이에 천신은 이후로 다시 땅으로 내려오지 않게 되었다.³⁾

이로써 볼 때, 원시사회의 정황은 사람과 신이 원활히 소통하다가 민과 신이 서로 섞여 지게 되었고,(民神相雜) 이로 인한 혼란으로 종교개혁을 한 결과가 바로 ‘절지천통’이란 것이다.

-
- 1) 傅斯年, 「夷夏東西說」, 「中國上古史論文選集」(上), 華世出版社, 民國68, 519-520 쪽. 부사년의 논문은 1930년대 「民族與古代中國史」에 처음으로 수록되었던 글이다.
 - 2) 「國語」 「楚語」, 昭王問於觀射父曰 周書所謂重黎實使天地不通者何也 若無然民將能登天 對曰 非此之謂也 古者民神不雜 民之精爽不攜貳者 而又能齊肅衷正… 如是則神明降之 在男曰覲 在女曰巫… 民神異業 敬而不瀆 故神降之嘉生 民以物享 禍災不至 求用不匱. 及少皞之衰也 九黎亂德 民神雜揉 不可方物… 民神同位 民瀆齊盟 無有嚴肅… 使復舊常 無相侵瀆 是謂絕地天通.
 - 3) 「尙書」 「周書」 呂刑, 乃命重黎 絕地天通 罔有降格….

이에 대해 노사광(勞思光)은, 먼저 ‘민신잡유’는 종교중심이 건립되지 않을 때의 자연현상이다. 원시사회에서는 신권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 중 관건의 문제는 사람마다 모두 신과 직접소통에 관한 것이다. 둘째, ‘민신잡유’의 정황은 巫祝의 일이 날로 성황한 현상에 속하며, 본래 어떤 한 민족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려가 특히 무축의 술을 중시하였기에 동이지역에서 폐해가 먼저 발생하였다. 셋째, 전욱의 개혁은 장차 신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전문가를 두고 되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사람에게 명하여 무격과 인사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는 宗教事務가 한쪽으로 몰아지게 되었다. 넷째, ‘절지천통’은 다시 準確한 해석을 하는데, 즉 상고 巫師가 원래 높은 산에 올라 천신과 상통한다는 설이 있었음 알 수 있다. 산해경에는 이러한 종류의 전설 자료가 있다.⁴⁾ 환언하자면, 지상의 산은 하늘과 상통하는 곳이다. 전욱의 ‘절지천통’은 대략 무사가 산에 올라 신의 일을 보는 것을 금지한 것이며, 帝丘(玄宮)가 신과 통하는 유일한 聖地로 남겨두었다. 이로써 종교중심이 비로서 건립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는 하나의 종교개혁의 역사적 의의인 즉 전욱의 종교개혁은 실로 부락의 ‘토템숭배’ 단계의 결속 및 초부락의 공동신앙이 처음 성립되었음을 표시한 것이다. 결국 토템숭배는 점차 쇠퇴하고 공동신앙이 점차 형성된다. 이는 각 부족 부락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었고, 또 각 부락은 共主制度가 탄생하게 된다. 결국 초보적인 통일왕국이 출현하게 된다.⁵⁾

통일왕국의 출현은 신앙상에서도 상제 및 천신앙의 절대적이고 통일적인 신앙체계가 들어서게 되었음을 말한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상고시대에 최고신의 개념이 나오기 전에는 사람과 신이 섞여 있고 친근했었으며, 다양한 토템을 숭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대 중국에 거주하던 동이민족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상고시대 동서대립은 이 후 남북의 관계로 변하게 된다. 동이족과 화하족은 때론 투쟁하고 혼합하면서 중원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거나 혹은 잃기도 하는데, 이 때 동이족은 남방 및 기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각 지역을 중

4) 『山海經』 「海外西經」, 巫咸國在女丑北… 在登葆山 羣巫所從上下也.

5) 勞思光, 『新編 中國哲學史』, 삼민서국, 1985(2판), 36-38참조.

심으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남방문화는 주말 춘추전국시대에 있어서 초나라로 대표하는 문화를 가리켜 말한다. 초나라는 주나라와 적대적 형세를 형성하게 되고, 또 초인과 은인은 연맹하여 주나라에 대항하였지만 실패하고 江漢지역으로 물러나와 남방문화의 주류가 된다. 남방문화는 동이, 은인, 축융족의 문화를 보유하게 된다. 남방문화는 주문화가 들어오지 못하면서 독특한 특징을 갖게 되는데, 즉 신권과 무권이 상대적으로 중시하였고 문학예술의 경향이 강하다. 북방문화는 주나라 사람이 건립한 전통으로 남방문화와 상대하여 가리킨다. 주문화는 합리적이고 인문주의 경향이 강하다고 말한다.

주말에 이르러 이 두개 전통은 곧 양대 사상조류로 나뉘어 출현한다. 북방의 주나라 문화전통은 이 후 공자로 대표되는 철학사상을 낳게 하고, 남방철학사상의 대표는 노자 및 장자의 학설이 된다. 즉 유가와 도가는 각각 남북문화의 전통을 대표한다고 하겠다. 이 두개의 문화전통 외에도 발해연안, 연나라, 제나라 옛 지역은 또 방사전통 및 음양오행의 여러 가지 방술사상이 있다. 남방 오나라 월나라 일대의 무술은 또한 모종의 신비관념이 남아있다. 이것은 모두 전국 진한의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⁶⁾ 연, 제, 초 지역은 고대 동이문화권으로 중국의 타 지역에 비해 문화적 연관성이 깊으며 신권과 무의 역할이 강성했던 곳이다. 바로 이곳을 중심으로 신선사상이 발생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 한 예로 중국의 대표적인 신화 지리서인 山海經이 이 지역의 방사들에 의해서 정리 종합된 것으로 간주된다. 신선설화는 전통의 원형성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신선사상이라는 특정한 관념체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그 선행적 형태로 이런 설화가 유행했다는 것이다.⁷⁾

원시시대의 신과 인간의 교통이 후대에 막혀지고 일부 계층-무사들을 중심으로 통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신에 대한 동경이 특히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남게 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더욱 주나라 통일 후 지배층 중심의 인문주의 경향과는 다르게 기층 민중을 중심으로 이러한 전통이 유지 보존된 것이라 하겠다. 그래서 남방문화를 대표하는 도가사상은 신선사

6) 노사광, 앞의 책, 71-74쪽 참조.

7) 鄭在書, 『不死의 신화와 사상』, 민음사, 1994, 15-16쪽

상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었다.

2. 道敎의 神仙思想과 儒敎의 天人合一思想

1) 神仙思想의 發生과 道敎의 神仙

도교의 신선사상은 신인관계의 하나의 발전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중국인들은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끊이지 않고 신선사상을 칭송했으며 불로불사를 체득하여 하늘을 날 수조차 있다는 신선에 대한 동경심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다. 신선이 영원히 젊은 상태에서 죽지 않는 것, 소원을 전부 실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 현세에서의 쾌락이 영원할 수 있다는 것 등이 그 원인이다.⁸⁾ 그래서 설화 속에서 실현가능한 존재로 묘사되었던 것이다.

신선설에 대한 가장 오래된 것은 史記 封禪書 가운데 나온다. 사기에 의하면 제의 위왕과 선왕, 연의 소왕 때(기원전 4세기 초-3세기)부터 동해 가운데 있는 삼신산, 즉 영주, 봉래, 방장산을 찾기 시작했다. 삼신산에는 불사의 약인 선약이 있다고 믿었다. 또 사기에는 방선도(方僊道)를 언급하고 있다.⁹⁾

‘방선도’는 仙人이 되기 위해 수행도 또는 선인이 행하는 수행도였을 것이다. “육체를 풀어 뜯이다”(形解銷化)란 말은 본래 시해를 가리키는 말로 생각된다. 즉 매미가 허물을 벗어버리고 껍질을 남기는 것처럼, 육체를 남기고 선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천선, 지선, 시해선의 세가지로 분류되는 선인 가운데 하나의 득선법이다.¹⁰⁾

하나의 학파적인 의미를 띠는 신선가란 용어는 반고의 漢書 藝文志에 일찍부터 등장하고 있다. 반고에 의하면 신선가란 참된 생명을 유지하고 세상 밖에서 노니는 사람으로 애오라지 뜻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가라앉혀 삶과

8) 구보 노리따다, 최준식역, 『道敎史』, 분도출판사, 1990, 81-83쪽

9) 『史記』 권28, 封禪書, 故始皇采用之 而宋毋忌正伯僑充尚羨門高最後皆燕人 爲方僊道 形解銷化 依於鬼神之事 騁衍以陰陽主運 顯於諸侯 而燕齊海上之方士 傳其術不能通… 自威宣燕昭 使人入海求蓬萊方丈瀛州 此三神山 其傳在渤海中 去人不遠… 제는 오늘날 산둥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발해만 연안지방의 나라이며, 연은 제의 북쪽으로 역시 발해만에 인접한 나라이다. 이로 인해 신선설이 산둥반도 연안에서 발생했다는 견해가 대체적으로 우세하다.

10) 酒井忠夫 外, 최준식역, 『道敎란 무엇인가』, 민족사, 1990, 289쪽

죽음의 영역을 한가지로 하여 가슴속에 슬픔이 없는 존재이다.¹¹⁾

신선을 다른 존재와 구별지어 주는 것은 선(仙)이라는 글자의 의미에 있다. 선(仙)은 선(畵)으로도 쓸 수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산 위에 있다는 것, 즉 높은 산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높은 산의 정상은 천계와 직결되는 곳이고, 따라서 그곳에 사는 존재인 선인의 상승적, 초월적 성격을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선이란 글자는 한대 이후부터 쓰이기 시작한 것이고 그 이전에는 선(僊)이라고 썼었다. 선(僊)의 본래의 의미는 춤소매가 펄렁거리는 것이다. 따라서 선인이란 가볍게 날아 올라가는 존재, 인신하면 천상에서 노니는 존재라 할 것이다. 신선의 다른 표현인 우인(羽人), 우사(羽士) 등은 이러한 비상(飛上)의 특징을 강조해서 쓰인 것이다. 결국 신선을 표현해 온 선(僊)과 선(仙) 두 글자의 본래의 의미를 통해 볼 때 신선은 초월적, 비상적 존재임을 알 수 있다. 釋名 釋長幼편에서는 선(仙)을 또 달리 풀이하여 ‘늙어도 죽지 않는 것을 선이라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신선은 죽음을 초월한 존재라고 귀납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정의는 반고의 신선가에 대한 설명과도 상통한다. 그리하여 신선사상은 실제적, 육체적으로 죽음을 초월하고자 소망하는 의식형태 및 그 달성에 수반되는 다양한 방법적, 기술적 체계를 총칭하는 것이라 하겠다.¹²⁾

그러나 한대에 이르러 신선사상은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특히 한 무제는 무당과 방사들을 가까이 하였는데 이소군은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연금술과 금으로 만든 밥그릇을 만들면 장생하고 봉래산에 있는 신선도 만날 수 있다고 황제에게 설한다. 이러한 설은 진시황 때의 신선설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다른 점이 있다. 진시황 때의 신선은 다만 ‘어떤 존재’였는데 뒤에 인간으로서도 어떤 방법을 취하면 ‘될 수 있는 것’으로 변한 것은 대단히 큰 변화라 하겠다. 여기서부터 신선이 되는 다양한 양생술이 설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이미 무제 때부터 抱朴子에 종합되어 있는 신선설이나 신선술이 점차로 준비되고 설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¹³⁾

11) 『漢書』 「藝文志」 放技略 神仙家條, 神僊者 所以保性命之眞 而游求於其外者也 聊以盪意平心 同死生之域 而無怵惕於胸中.

12) 정재서, 앞의 책, 32-34쪽

13) 구보 노리따다, 『道敎史』, 분도출판사, 1990, 100-101쪽

신선가들이 추구하는 개체변화의 궁극적 목표는 완전한 인간, 즉 불사적 존재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지는 구체적으로 정신수양(養神)과 육체수련(養形)의 두가지 방면에서의 노력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어왔다.

먼저 정신수련은 우주 본원에 대한 뚜렷한 인식 및 체득을 위한 명상수련이나 정신집중력 배양으로부터 인격수양을 위한 덕행 및 선행의 실천 등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이 있다. 양생론적 측면에서 육체수련 방법은 정신수련보다 훨씬 중시되고 다양하게 강구되고 있다. 수련방식은 크게 복약, 호흡수련, 방중술 등이 있다. 복약은 약을 복용하여 신선이 되는 방식이다. 호흡수련에서 기는 근원적 에너지 곧 생명력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하면 목숨이 스러진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위해 服氣, 閉氣, 行氣, 運氣, 調息, 胎息 등이 개발되었다. 호흡수련의 효과는 매우 크다. 호흡수련을 통한 기의 확충은 신체를 변화시켜 불로장생으로 이끌고 기의 운용은 갖가지 초자연적인 능력을 구할 수 있도록 해준다. 호흡수련은 또한 정신수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명상, 내관 등의 정신수련은 흔히 호흡수련과 겸행되는데 수련이 일정한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생리적 변화와 아울러 입신(入神), 망아(忘我)와 같은 정신경지를 체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 단계를 넘어나 가면 정신과 육체는 더욱 교양되어 간다는 것이다.

호흡수련은 신체내부에 잠재한 자신의 생명력을 확충, 운용시켜 나가는 것이기에, 앞서 언급한 선약처럼 외부의 물질을 빌려 장생을 꾀하는 것과는 상대적이다. 그래서 선약에 의한 득선의 방식을 외단법이라 하며, 그 상대적인 것을 내단법이라 부른다. 당대 이후로는 선약의 중독폐해가 두드러져 외단법이 추구되지 않고 내단법이 중시됨에 따라 호흡수련은 모든 신선수련 중에서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¹⁴⁾

결국 내단법은 인간의 기질변화와 육체의 단련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신선사상이 도교 안으로 흡수되면서 고대 신인관계를 하나의 유형으로 발전시킨 셈이다. 신과의 소통이 불통된 후 신(천)에 대한 동경에서 신선설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도교의 신선은 직접 神化 혹은 신선이 되고자 하는 추

14) 정재서, 앞의 책, 43-57쪽 참조.

구였던 것이다. 즉 신선을 통해 신과 합일을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2) 儒敎의 聖人과 天人合一思想

신인관계의 또 다른 발전형태는 유교의 천인합일 즉 위성(爲聖)이다. 그러나 유교의 천인합일사상이 정착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걸쳐 변화 발전하게 되는데, 民神相分-民神相通-民神合一, 天人合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앞 장에서 상고시대의 民神雜揉가 전옥의 종교개혁으로 하늘과 교통이 제한된 뒤로 絶地天通으로 바뀌었음을 지적하였다. 이 후 통일국가 성립은 종교상에서도 최고신 관념이 등장하게 된다. 은대의 상제, 제와 주나라의 천은 바로 인격적 종교적 의미가 강하였다. 이 때는 民神相分の 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신 혹은 천과 소통, 교감하려는 노력을 하여왔다. 점서(占筮)가 그 매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점서를 교통 수단으로 하는 이 구조는 춘추말기 천사상의 동요, 점서사상 등의 변화로 다시 새로운 사유체계로 이어지게 된다. 이 변화는 易傳의 내용에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나타는데 하나는 신관념의 변화란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지위와 역학의 변동이란 측면이다. 이때 신인의 연결구조는 점서에서 ‘人間의 神明’으로 바뀌게 된다. 역전의 신 관념에서는 전통의 종교 주술적 차원의 실체적 신 관념이 우주질서의 “신묘함”이나 그 신묘함의 “불가측성” 등의 작용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¹⁵⁾

음양의 변화가 오묘하여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일러 神이라 부른다.¹⁶⁾

그러므로 神은 일정한 장소가 없고 易은 일정한 체가 없다.¹⁷⁾

이 구절에서 신의 의미를 ‘陰陽不測’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즉 신개념이 초월적, 인격적 의미에서 벗어나 “음양변화의 오묘함”이란 의미의 전환을 하게 되는 것이다. 뒤 구절 역시 신의 오묘함은 어느 일정한 장소나 방향이 없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으며, 그 변화가 무궁하여 일정한 형체가

15) 김성기, 「周易의 神人관계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 『동양철학』 제5집, 1994, 한국동양철학회, 168-170쪽

16) 「周易」 「繫辭上傳」 5장, 陰陽不測之謂神.

17) 「周易」 「繫辭上傳」 4장, 故神无方而易无體.

없다는 것이다.

신관념의 변화에서 인간은 새로운 신인관계의 정립이 요구되어 진다. 이로 인해 나타난 인간의 위상은 천지와 우주의 신묘한 이치를 파악하고 입법하는 새로운 가치의 근원자의 입장에 서게 된다.

羲를 정밀하게 탐구하여 신묘한 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활용에 이르기 위한 것이다.¹⁸⁾

여기에서 입신은 인간이 신묘한 경지에 들어가는 경지를 뜻한다면, 그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정의 즉 사물의 이치를 정밀하게 궁구하는 것이다. 이는 가치의 발견이 신의 명령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주체적 자각활동에 의한 우주자연의 오묘한 원리를 발견해 가는 여러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신 개념의 변화와 인간의 지위 향상은 새로운 신인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이 때 자각적 인지활동에 의해 신명의 경지와 생사의 원리에 통달할 수 있는 주체적 '인간의 神明'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하겠다.¹⁹⁾

유교는 民神相通의 경지에서 나아가 民神合一으로 발전한다. 주역의 신 개념이 인간주체의 德性 깊이를 형용해 주는 의미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맹자에서 잘 나타난다.

大人이면서 저절로 化합을 聖人이라 이르고 성스러워 알 수 없는 것을 神人이라 이른다.²⁰⁾

군자는 지나가는 곳에 교화가 되며, 마음에 두고 있으면 신묘해진다. 그러므로 상하가 천지와 더불어 함께 흐르나니 어찌 조금 보탬이 있다고 하겠는가.²¹⁾

이처럼 신은 인간에게 내재된 덕성을 형용하고 있다. 이런 전환은 역전과 증용으로 계승되어 심화, 발전하여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역경의 증점은 사람의 덕행으로 귀결되고, 역경의 모든 괘효변통의 원리

18) 『周易』 「繫辭下傳」 5장, 精義入神 以致用也 利用安身 以崇德也.

19) 김성기, 앞의 논문, 172-175쪽 참조.

20) 『孟子』 「盡心下」, 大而化之之謂聖 聖而不可知之之謂神.

21) 『孟子』 「盡心上」, 夫君子 所過者化 所存者神 上下與天地同流 豈曰小補之哉.

가 반드시 사람에 의해서만 비로소 발휘될 수 있음을 명백히 해준다.²²⁾ 신명의 원뜻이 외재적 신의 영역이나 초월의 세계를 나타내준 말이었다면 이제 신명은 인간에게 주어진 인간의 영역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신명의 성취도 그 책임이 인간에게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신명의 주체가 인간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²³⁾

易道가 궁극적으로 인간의 덕행에 의해 발현된다는 설명이다. 계사전에 보면,

도를 잘 들어내어 덕행을 신묘하게 한다. 이 때문에 더불어 수작할 수 있으며 더불어 신을 도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자가 “변화의 도를 아는 자는 신의 하는 바를 안다”고 하였다.²⁴⁾

인간의 신명을 완성케 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감응, 감통의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의 窮神知化, 齊戒, 感通 등은 신과 인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교통방법이 인간의 덕에 달려 있고, 그 능력은 우주만물의 원리에 통달하고 합일하게 하는 길로 제시되었다. 인간과 신의 영역이 합일된 모습은 乾卦 文言傳에 가장 잘 나타난다.

대저 대인은 천지와 그 덕을 합하며 일월과 그 밝음이 합하며 사시와 그 질서가 합하며 귀신과 그 길흉이 합한다.²⁵⁾

여기서 대인은 천지와 일월, 사시와 귀신 등과 그 신명을 같이 하는 존재이다.

유교의 이상인 천인합일에 이르는 신인관계의 변화 발전을 살펴보았다. 천인합일이란 개념의 완성은 적어도 증용이나 역적의 내용이 성립된 시기와 비슷하다고 하겠다. 그 이전의 신인관계는 民神不雜, 民神相通, 民神合一 등의 구조적 변화를 거치면서 선진유가의 사유 틀이 완성되고, 이때 비로소

22) 『周易』 「繫辭上傳」 12장, 化而裁之存乎變 推而行之存乎通 神而明之存乎其人 墨而成之不信而信 存乎德行.

23) 김성기, 앞의 논문, 179쪽

24) 『周易』 「繫辭上傳」 9장, 顯道神德行 是故 可與酬酢 可與祐神矣 子曰 知變化之道者 其知神之所爲乎.

25) 『周易』 「乾卦 文言傳」, 夫大人者 與天地合其德 與日月合其明 與四時合其序 與鬼神合其吉凶.

天人合一 즉 성인이라는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이 자리 잡게 된다. 이 후 유교는 송대에 이학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상에서 도교와 유교의 신인관계의 발전양상을 살펴보았다. 고대의 원시종교는 점차 종교다운 하나의 신앙체계가 형성되며 동양에서는 천사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천에 대한 신앙은 순수한 종교현상으로서 기도나 경배를 통한 천과의 영적 소통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서의 자기수련을 통한 천과의 동참의식이다. 특히 후자는 동양의 천인합일사상과 거의 같은 의미라 하겠다. 왜냐하면 천인합일사상이 가치론적으로 추구될 때 그것은 도덕적 인격형성 내지 그 완성을 의미하지만, 동참의식은 그러한 도덕적 인격보다는 장생불사하는 개체적 생명의 완전을 의미하는 천인동체의 사상을 낳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자의 도덕적 인격완성으로 천인을 하나로 보는 천인합일사상은 최고 인격자로서의 성인을 추구하게 되는 유교사상을 낳게 하였다. 후자 즉 불로장생의 개체적 생명의 영속 내지 완전에서 천인을 하나로 보려는 사상은 생로병사의 굴레를 벗어나 영생자로서의 선인, 진인 또는 신선으로 나타나는 개인 생명의 장생을 추구하게 되는 도교사상을 형성하게 되었다.²⁶⁾

도교와 유교는 신선과 성인이라는 각각의 인간상을 내세우면서 발전하게 된다. 이에 이르는 방법에 있어서도 도교의 내단법과 유교의 수양론은 판이해진다. 그렇지만 인간의 기질을 바꾸려는 것에서 유사점도 보인다.

송학을 대표하는 주희의 공부론과 수양론의 전 과정은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천리로서의 도덕적 본성(도심)을 전제하고, 기질의 소산인 인욕(인심)을 억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질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교육을 통한 교화와 도덕적 질서에 부합이 우선된다. 한편으로 도교의 내단법도 기질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사상을 갖고 있다. 도교에서는 도를 드러내는 방법 즉 득도의 수양에 대해 자세한 방법론적 탐구를 하였다. 그것이 도교의 내단법이다. 내단의 방법은 간단히 말하면, “形體→形質→精神→虛=道”로 발전해가는 인격의 자기 개조의 과정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기의 변화의 질

26) 송항룡, 「한국 고대의 도교사상」 『도교와 한국사상』, 한국도교사상연구회편, 아세아문화사, 1994, 19-20쪽

차를 탐구한다. 그것을 한마디로 “練氣論” 또는 “練化論”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도교와 유교의 수양이 지향점이 유사하다고 하겠다. 결국 도교의 수양에서 완성태로서 득도는 인체와 정신의 수련을 통해, 그 본래적 자연적 몸을 회복하는 것이었던 반면, 유교의 수양은 궁극적인 원리인 천리를 다시 인륜적 질서로 이해하고 있었던 만큼, 천리의 회복이란 사회적 내지 도덕적 기준에서 어긋나지 아니하는 문화적 신체의 획득이라는 전혀 다른 방향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²⁷⁾

유교가 심성의 기질문제를 도덕적 또는 사회적 교육을 통해서 주로 마음을 위주로 그 방법을 강화시켰다면, 도교는 인육의 발로인 기질에 대해 수련을 통한 육체의 변화에 중점을 두었고 일부의 도교분과는 대담하게도 몸의 단련시켜 신선이 되고자 추구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이처럼 두 종교는 이상적 인간상에서 공통된 점이 있으나 그 방법론에서는 커다란 차이를 드러내면서 각각 발전하게 된다. 그 차이점을 극복하려는 시도는 중국 종교사상사에서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19세기 한국에서 신종교사상의 등장과 더불어 이에 대한 진지한 노력이 나타난다.

Ⅲ. 韓國의 神仙思想

1. 古代의 神仙說

신선사상은 중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한국 고대에서 출발했다는 일부의 견해가 있는데,²⁸⁾ 그 근거를 단군신화에 두고 있다. 이 견해의 타당성을 차지하더라도 최소한 한국 고대에 신선사상이라 할 만한 요소는 풍부하다. 그리고 고조선과 신라의 풍류도 등에서도 이러한 점들이 확인된다.

한국의 신선사상은 단군의 건국에 나타난 천사상 혹은 신관에서부터 전개된다. 단군신화가 가지는 내용적인 핵심을 천사상이라고 하는데, 그 사상은 천상의 천보다 지상의 천, 인간과 공존하는 천으로 구체화됨으로써 인간화

27) 이용주, 「주희와 도교」, 『종교학 연구』 16집, 서울대 종교학연구회, 1997, 117-118쪽

28) 이능화, 『한국도교사』, 보성출판사, 1996, 23-32쪽 참조.

된 신(또는 神化된 人間)을 의식하는 단군사상으로서의 신앙체계를 형성하였다고 하겠다. 단군은 천상의 신이라기보다는 지상의 인간이요, 인간이 된 신인으로서의 완전한 인간이다.²⁹⁾

한국 신선사상의 핵심부분은 揆園史話의 檀君紀에 기재된 단군의 大誥에 천명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우주의 주재자인 유일신과 그 권능을 일러 주고 있고 그 신이 거하는 신계를 밝혀주고 있다. 이어 천제(환웅)는 3천의 집단을 이끌고 우리의 조상이 되어 공업을 완수하였고 다시 신의 고장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공업을 완수하고 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인데, 이는 하늘로 올라가 일신의 고장에서 영생을 누리는 일로 신선가의 지향으로 설정된 의의가 있다. 다른 항목에서 다른 사람들도 하늘의 법도를 본받아 부선멸악(扶善滅惡)해야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순성(純誠)과 일심(一心)을 가리켜 주고 있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신의 고장으로 가서 영생한다는 즉 신선이 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도덕적 행위가 요구된다.³⁰⁾ 그러나 단군의 탄생과 고조선의 건국은 하늘의 이상을 이 땅 위에 실현하자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들어난 것이다. 즉 하늘에서의 영생이 아니라 지상에서의 신선이 되려는 노력과 결실이 단군신화로 표현된 것이다. 그리고 단군이 죽어 천상으로 돌아가기 보다는 지상의 선인으로 남는 것은 이를 반증한다. 이런 신선설은 신라의 화랑도와 풍류도로 이어지고 있다.

揆園史話나 靑鶴集을 보면, 해동선가의 도맥은 桓因→桓雄→檀君→文朴氏→永郎→寶德의 전승으로 나타난다. 이는 한국 신선가가 신라에서 발전한 것임을 보여준다. 특히 영랑은 신라사선(四仙) 중 하나이므로 신라에서 신선 혹은 선도가 성행하였음을 볼 수 있다.³¹⁾

14,5세에 시작한 화랑은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지면 국선(國仙)의 자리에 오르는데 김유신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국선이 된 일이나 지선이니 선랑(仙郎)이니 하는 화랑의 별칭이 있는 것, 선자(仙字)가 따라다니는 사실을 가지고

29) 송향룡, 『한국도교 철학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87, 22쪽

30) 차주환, 「한국 도교의 공동체관」 『도가사상와 한국도교』, 한국도교문화학회 편, 국학자료원, 1997, 9-11쪽

31) 『高麗史』 毅宗條, 遵尙仙風 新羅仙風大行 由是龍歎悅 民安物寧 故祖宗以來 崇尚其風久矣.

도 화랑도와 민족 고유의 신선사상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영랑을 포함한 사선들이 徒衆들과 어울려 승지를 찾아다니며 游娛하는 작품은 화랑도와 선도를 연관성을 더해준다. 더욱 나말 최치원의 鸞郎碑序는 이를 더욱 잘 보여준다. “나라의 오묘한 도가 있어 그것을 풍류라 한다. … 거기에는 실로 삼교를 포함하고 있어 못사람들을 도와서 교화하여 준다”³²⁾ 풍류도라는 신라 고유의 가르침이 있어 화랑도는 그 가르침을 받들어 수련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화랑도는 결국 이 풍류도와 상통하거나 심지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³³⁾

이처럼 한국 고대에 신선설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군설화를 시발로 하여 환인이래의 선도전승의 문제와 신라사선 특히, 영랑의 도맥전승을 연결시켜 사선의 유풍을 곁들여서 화랑과 신선사상의 맥락이 이어지고 있다. 또 최치원의 난랑비서에 나타난 풍류도 역시 화랑의 지도이념이자 선도의 한 부분임을 통해서 보다 분명해진다. 그러나 고유의 신선설은 도교의 전래에 따라 흡수된다. 이 후 고려 조선시대까지 도교 혹은 선도의 모습으로 신선사상은 명맥만이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근대 동학의 출현은 다시 한번 선도 내지 신선사상이 드러나는 계기가 된다.

2. 近代 東學의 神仙思想

동학의 핵심은 시천주 사상이다. 왜냐하면 상제를 받들어 모시고 나가는 것을 최고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동학에는 신선사상이 내포하고 있다. 그 예로 수운의 동경대전이나 용담유사에 神仙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수운의 유저에 도교적(仙道) 색채가 농후한 것으로 보아 도교 내지는 선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동학 경전에 이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경신년 이르러… 어떤 神仙의 말씀이 문득 귓속으로 들려왔다.(東經大全 布德文)

32) 國有玄妙之道曰風流 設教之源 備祥仙史 實乃包含三教 接化羣生.

33) 차주환, 「화랑도와 신선사상」 「도교사상의 한국적 전개」, 한국도교사상연구회 편, 아세아문화사, 1989, 11-20쪽 참조.

나에게 靈符가 있으니, 그 이름은 仙藥이오(上同)

入道한 세상사람 그날부터 君子되어 無爲而化 될 것이니 地上神仙 내아
니나(龍潭遺詞 教訓歌)

나도 또한 神仙이라 飛上天... 너도 또한 仙分있어(龍潭遺詞 夢中老少問
答歌)

이처럼 동화의 경전 중에 신선, 지상신선, 선약 등의 어휘가 많이 보이고 있다. 또 수운 스스로 신선으로 지칭하기도 하고, 또는 세상의 사람들이 선분이 있어 노력만 하면 누구도 지상신선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신선은 도교에 있어서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형에 해당한다. 그런가 하면, 인간이 도달하는 최고의 경지이며, 동시에 초월적 존재이기도 하다.³⁴⁾ 그러나 동화 경전에 나타난 신선은 보국안민을 위해 초월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고, 또 보통사람과 같이 풍마를 겪어야 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다. 더욱 누구나 지상신선이 될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³⁵⁾

좀더 살펴보면, 경전에 나타난 신선이란 용어는 대체로 두 가지로 나뉘어 사용되고 있다. 즉 전래적으로 일반이나 도교에서 쓰이는 의미의 신선을 그대로 援用해서 쓴 경우와 동화 특유의 종교적 이념이 담겨 있는 경우가 그것이다. 안심가 등에 나오는 “나도 또한 신선이라 비상천한다 해도”등과 같이 초월적인 능력을 지닌 신선으로 쓰인 것은 대체로 전자에 해당하고, ‘지상신선’ ‘신선의 인연’ ‘선분’ 등으로 쓰인 것은 후자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화의 신선은 도교적 신선이기 보다는 지상신선으로 특유의 사상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다. 즉 지상신선은 도교의 지상선과는 다른 것으로, 동화에서 추구하는바 동화의 이상적인 인간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상신선은 동화의 이상인 지상천국을 이룩하는 그 구성원이 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³⁶⁾

이 지상신선이 되기 위해서는 도교와 같이 行氣, 服藥 등의 방법을 행하

34) 『抱朴子』內篇 권3, 對俗, 神仙道 長生久視 天地相畢….

35) 윤석산, 「동화에 나타난 도교적 요소」 『도교사상의 한국적 전개』, 한국도교사상연구회편, 아세아문화사, 1989, 330-331쪽

36) 윤석산, 「용담유사에 나타난 수운의 인간관」 『한국학논집』 5집, 한양대 한국한연구소, 1983.

지 않고, 다만 무위이화해서 지상신선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적서와 반상의 구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상제를 믿고 모시면 신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동학의 신선사상의 지론이다. 이는 동학의 종교적 수행을 위한 선결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나의 道는 無爲而化이니,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면 성품을 거느리고 가르침을 받게 되어 자연한 가운데에서 화하여 나오게 된다.³⁷⁾

무위이화는 동학의 도의 본체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한편으로 정심수기하면 하늘로부터 품부된 성품을 거느리게 되고 한울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 자연한 가운데 저절로 화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무위이화는 종교적 수행과 노력이 전제될 때 비로소 자연히 화해진다는 것이다. 즉 동학에서는 능동적인 인간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동학의 인격적 수양을 통한 천성의 회복은 지상신선이 되기 위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선행조건이 된다고 하겠다.

사람의 정성은 하늘을 감응하게 하고, 하늘은 조화를 통해 무위이화하게 하고, 사람은 이 무위이화를 통해 하늘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무위이화의 경지 속에서 한울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합일하게 되고 ‘한울의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이라는 천인합일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렇듯 천인합일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바로 지상신선인 것이다. 다시 말해, 동학에서 제시한 지상신선은 무궁한 한울님의 덕을 갖춘 인격체의 사람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다. 아울러 이 지상신선은 도교의 신선과 같이 선경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손으로 이 지상에서 선경인 지상천국을 이룩하게 된다. 따라서 이 지상신선들이 사는 공동체가 바로 동학이 추구하는 이상세계이다.³⁸⁾ 그러나 동학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비전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는다.

37) 『東經大全』 「論學文」, 吾道無爲而化 守其心正其氣 率其性受其教 化出於自然之中也.

38) 윤석산, 「동학에 나타난 도교적 요소」, 앞의 책, 336-338쪽 참조.

IV. 大巡眞理의 地上神仙

1. 神人關係와 地上神仙

대순진리의 목적 중 하나가 지상신선실현과 인간개조이다. 개조된 인간이 후천의 인간상인 지상신선이라 하겠다. 대순진리의 경전인 典經에는 상제님의 강세와 행적, 교법 등에 신선 또는 선도와 유관한 구절들이 나타난다.

상제께서 강세한 고부지역은 예로부터 봉래산, 영주산, 방장산의 세 산이 삼신산이 있다. 그 중 방장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산줄기에 망제봉과 영주산이 솟아 있고 망제봉의 산줄기가 기복연면하여 시루산을 이루고 있다. 이 시루산 동쪽 들에 객망리가 있는데 상제께서 탄강하기 이전에는 선망리라 불려진 곳이다. 또한 상제의 탄강시 산실에 하늘로부터 두 선녀가 내려왔다고 전해진다.³⁹⁾ 이처럼 강세한 지역과 탄강에서부터 유달리 신선사상 혹은 선도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대순진리의 신인관계는 앞서 도교나 유교와 다른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먼저 신의 존재의의는 인간행위가 지향해 나가야만 하는 가치를 담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신의 존재를 상정함으로써 인간 자신의 행위를 규율해 나갈 수 있는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신도(神道)로써 크고 작은 일을 다스리면 현묘 불칙한 공이 이룩되나니 이것이 곧 무위화니라. 신도를 바로잡아 모든 일을 도의에 맞추어서 한량없는 선경의 운수를 정하리니 제 도수가 돌아 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⁴⁰⁾

여기서 신도란 신적 질서와 법칙을 뜻하는 말이다. 인간관의 관계에서 신도는 인간의 역사를 일으키는 바탕이 되며, 나아가 그 역사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오직 신적 근거에 의해서만이 실현 가능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즉 신은 인간에게 있어 가치의 근원자로서 존재하며 이를 인간이 바르게 상정하여 주체적으로 생활해 나갈 때 비로소 인간사회에서 하

39) 대순진리회교무부, 「典經」, 대순진리회출판부, 1974, 행록 1장 2절-4절, 7절, 10절 참조.

40) 「典經」, 예시 73절

나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⁴¹⁾ 이를 바탕으로 그 관계를 살펴본다.

지금까지 신의 존재문제, 신과 인간의 이상적 관계에 대해서 각 종교나 사상에서 분분하였지만 이에 대해 명쾌한 설명을 하고 있다. 그 요점은 신인의도(神人依導)이다.

신이 있고 사람은 있다. 신은 음이고 사람은 양이다.… 천지의 일은 모두 음양 가운데서 이루어지며 만물의 이치가 모두 음양가운데서 성취된다. 천지는 음양으로써 변화를 이루며 신과 인간은 음양으로써 조화를 이룬다.… 신은 사람이 없으면 후사를 의탁할 수 없으므로 사람에게 의지하며, 사람은 신이 없으면 앞에서 이끌어 주지 못함으로 신에 의지한다. 신과 사람이 화하여 만사를 이루고 신과 사람이 합하여 백공을 이룬다. 신명은 사람을 기다리고 사람은 신명을 기다린다. 음양이 상합하고 신인이 상통한 연후에 천도가 이루어지고 지도가 이루어진다. 신의 일이 이루어져야 사람의 일이 이루어지고 사람의 일이 이루어져야 신의 일이 이루어진다.⁴²⁾

신과 인간이 음양관계이고 천지의 일과 만물의 이치가 모두 이 음양가운데서 이루어지며, 천지와 신인은 음양으로써 변화와 조화를 이룬다. 신과 인간은 의탁하고 이끌어 준다는 즉 신인의도의 관계임을 지적한 것이다.

신인의도는 종래의 신 중심 또는 인간 중심도 아닌 음양의 관계처럼 뺄 수 없는 관계이며, 화합하고 상통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밝힌 것이다. 이 점은 현대의 신인관계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다. 더욱 신과 인간은 마음을 통하여 교섭한다.

마음이란 것은 귀신의 추기요 문호요 도로이다. 추기를 열고 닫으며 문호를 출입하며 도로를 왕래하는 신은 혹은 선한 것도 있고 혹은 악한 것도 있다. 선한 것은 스승으로 삼고 악한 것은 고쳐 쓰게 되니 내 마음의 추기와 문호와 도로는 천지보다 크다.⁴³⁾

인간의 마음은 신과 인간의 교통하는 장소라고 밝혀주고 있다. 이는 인간의 모든 주체적 행위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며 인간행위의 결과는 신적 작용의 소산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여기에 인간은 마음에 작용하는 신적 교류

41) 이경원, 「한국 근대 천사상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8, 121-122쪽

42) 「典經」, 교운 2장 42절 陰陽經.

43) 「典經」, 행록 3장 44절

를 감지하고 가치판단을 통해 올바른 성과를 달성 할 수 있도록 그 주체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⁴⁴⁾ 즉 인간존재의 위상은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신에 가치의 근원을 두고 있으면서도 그 자각적이고 주체적인 노력과 행위는 인간의 몫임 밝히고 있다.

그 몫은 곧 수도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대순진리의 이상적, 미래적 모습이자 그 관계인 神人調化를 이룰 수 있다. 신인조화는 종지중 하나이며 음양합덕의 대법칙이 신인관계에 적용된 원리이자 결과이다. 신과 인간이 調和와 造化된 상태가 신인조화이며 그 결과가 바로 인간의 개조의 지상신선이며 도통군자라 할 수 있다. 지상신선은 신도 아니고 현재의 인간의 모습도 아닌 후천의 인간상이다. 그러한 단면을 전경에는 성인으로도 묘사하고 있다.

요순(堯舜)의 도가 다시 나타나리라.⁴⁵⁾

지난 선천 영웅시대는 죄로써 먹고 살았으나 후천 성인시대는 선으로써 먹고 살리니...⁴⁶⁾

상고의 요순은 동양에서 성인의 상징이자 표본이다. 요순이 펼친 도로서 당시에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를 비유하여 후천이 성인시대이자 성인의 도로서 다스려지는 세계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지상신선이나 성인 등은 명칭은 다르지만 인간의 내적 성숙에서 유사한 것이다. 그러나 대순의 지상신선은 도교의 신선이나 유교의 성인과는 차이점이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이는 뒤에서 논하고 이를 위한 방법을 살펴본다.

2. 地上神仙의 方法

지상신선이 되기 위해서는 자력적인 방법과 타력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인간의 심신을 그 대상으로 한다. 심신을 변화 개조하기 위한 자력적인 방법과 타력적인 방법이 동시에 진행되어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

44) 이경원, 앞의 논문, 123쪽

45) 『典經』, 교운 1장 46절

46) 『典經』, 교법 2장 55절

으니 이것이 곧 수도 공부라 하겠다. 전경은 수도공부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도를 닦은 자는 그 정혼이 굳게 멩치기에 죽어도 흠어지지 않고 천상에 오르려니와 그렇지 못한 자는 그 정혼이 희미하여 연기와 물거품이 삭듯 하리라.⁴⁷⁾

도통은 이후 각기 닦은 바에 따라 열리리라.⁴⁸⁾

수도자는 정혼이 멩쳐 죽어서도 흠어지지 않고 천상에 오른다는 점과 수도의 목적인 도통은 자신이 닦은 바에 따라 열리게 됨을 말하고 있다. 이런 수도의 방법이자 지상신선의 방법인 자력적인 방법부터 알아본다.

하나의 종교사상에서 수행의 기본전제는 신심을 갖는데서 출발한다. 특히 상제의 강세와 천지공사라는 대역사를 통해 선경세계가 이루어진다는 신념이 필요하다.

나를 믿고 마음을 정직히 하는 자는 하늘도 두려워 하느니라.⁴⁹⁾

상제님에 대한 신앙심은 수도의 목적을 이루는 토대라 하겠다. 자력적인 수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일심’이란 말로 축약된다. 일심은 나의 마음과 정신도 통일시키게 하며, 신과의 교통 속에서 인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한다.

이제 범사에 성공이 없음은 한 마음을 가진자가 없는 까닭이라. 한 마음만을 가지면 안 되는 일이 없느니라.⁵⁰⁾

일심은 종교적 심성을 가리키는 마음의 자세이다. 이로서 내면의 일정한 신앙적 상태를 유지하며, 인간의 본질을 자각하고 주체적으로 거듭 태어나게 한다. 지상신선을 위한 방법에 있어서 신심과 일심이 수도의 전제이자 출발점이라면 이로부터 구체적인 실천방법들을 찾아 볼 수 있다. 그 대표적

47) 「典經」, 교법 2장 22절

48) 「典經」, 교운 1장 33절

49) 「典經」, 교법 2장 7절

50) 「典經」, 교법 2장 5절

인 것 중 하나가 주문수련이다. 대순진리에서는 여러 가지 주문들이 봉행되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주문은 기도주(시천주)와 태을주이다.

도를 닦는 사람의 주문 읽는 소리에 신응(神應)되는 까닭이라 51)

오는 잠을 적게 자고 태을주를 많이 읽으라. 그것이 하늘에서 으뜸가는 임금이니라. 오만년 동안 동리 동리 각 학교마다 외우리라.52)

주문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대순진리회 요람에 밝힌 수도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요람에는 “수도는 심심을 침잠추밀하여 대월상제의 영시의 정신을 단전에 연마하여 영통의 통일을 목적으로 공경하고 정성하는 일념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지성으로 소정의 주문을 봉송한다”53)고 하고 있다. 즉 상제를 모시는 정신을 단전에 연마하여 영통·도통을 위해서 정성과 공경의 일념으로 주문을 봉송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 점은 도교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다. 도교 내단법의 수련은 신체 내의 물약(藥物)인 精氣神의 還元修煉을 뜻한다. 몸과 마음의 자세를 안정시킨 상태에서 정신을 통일하여 순수히 하기를 오래도록 하면 자연히 호흡이 고르고 깊어지며 그 호흡의 기운을 따라서 체내의 진원(眞元)의 기운이 일어난다. 정 기 신은 인체 내에서 각각 하단전(배꼽부위), 중단전(심장부위), 상단전(뇌부위)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정신의 통일이란 다른 아닌 뇌를 중심으로 상단전의 神을 배꼽부위에 자리 잡고 있는 하단전의 정에 응집(凝集)시키는 행위이다.54) 이러한 내단수련을 통하여 성선(성선)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순에서의 주문수련은 단전호흡같은 방법을 따로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문을 봉송하는 가운데 호흡법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신을 침잠하여 일념의 정신을 단전에 모으면서 연마하면 되는 것이다. 정신이란 정과 신이 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상제에 대한 영시의 정신을 연마할 수 있도록 주문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태을주 주문이

51) 「典經」, 교법 2장 23절

52) 「典經」, 교운 1장 60절

53) 「大巡眞理會要覽」, 18쪽

54) 張成秀, 「道敎의 內丹·外丹과 그 起源에 관하여」, 「東洋哲學研究」 6집, 동양철학연구회, 1985, 147쪽

중시된다. 인용구절에서 태을주는 후천의 세계에 어느 누구나 외우게 되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태을주를 김경흔이 신명에게 얻을 때 ‘많은 사람을 살리라’는 명을 받았다 한다.⁵⁵⁾ 이러한 주문을 통해 정신의 통일과 기질의 변화를 이끌어 내어 육체적인 개조의 밑바탕이 된다고 하겠다.

한편 대순의 수도공부가 주문만 봉송하는 것이 아니라 한다. 즉 앉아서 시간에 맞춰 기도만 들이는 소극적인 수도가 아니라 포덕이라는 적극적이고 향외적인 실천수도를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타력적인 방법이 있다. 타력적인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자력적인 것과 타력적인 방법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 지상신선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일이며 미래의 인간상이라 하겠다. 이에 이르는 데는 무엇보다 자력적인 즉 주체적인 인간 스스로의 실천이 필요함을 당연하다. 인간의 능동적인 노력이 지극한 뒤에야 타력적인 신명 혹은 신과의 합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일심의 수도를 바탕으로 내적인 성숙과 자각을 이루어 성인의 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신명의 도움으로 최종의 목적인 신선이 된다고 하겠다. 이는 대순진리회 각 도장에 그려져 있는 심우도란 그림에 잘 나타나있다. 심우도는 본디 불교에서 수행의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도장에 그려진 심우도는 전체적으로 불교의 것과 유사하지만 마지막 한 폭의 그림이 판이하다. 불교 심우도의 끝은 대개 동자가 소를 타는 것 즉, 득도를 설명한데 비해, 대순 심우도의 마지막은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道之通明’이란 신선과 선녀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이것은 도를 체득하는 단계를 넘어 정신과 육체가 완전히 탈바꿈한 신선의 단계를 보여준 것이다. 기존의 종교가 성인이나 부처, 신선을 이상으로 한 것은 이 경지만을 묘사한 것이라면 대순에서는 다가오는 후천시대의 인간상이 지상신선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점이 대순과 여타의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이다. 아무튼 지상신선이 실현되는 데는 인간의 주체적인 노력과 더불어 타력적인 힘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의 뱃속에 출입케하여 그 체질과 성격을 고쳐 쓰리니...⁵⁶⁾

55) 『典經』, 교운 1장 20절

앞서 사람의 마음은 신과의 소통처라고 하였다. 마음을 통하여 선신과 악신이 수시로 들어 올 수 있는데 이를 가려 자신의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신명을 출입케 하여 체질과 성격을 고쳐 쓰는 것은 인간 본연의 청정한 상태로 회복시킴을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천지공사 중의 인간공사 즉 인간을 개조하기 위한 공사의 일환이기도 하다. 그것은 현재의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가지고서는 후천에 넘어갈 수도 적응할 수도 없기 때문에 상제께서 신명으로 하여금 인간을 고쳐 쓰려는 목적과 과정상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걸친 후에 결국 신과의 합일, 조화를 이루어서 지상의 신선으로 탈바꿈해진다고 한다.

지상신선이 되는 방법과 과정을 전경은 다음과 같이 비유하고 있다.

옛날에 어떤 탕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자신이 방탕하여 보낸 허송 세월을 회개 자책하여 내 인생을 이렇게 헛되게 보내어 후세에 남김이 없으니 어찌 한스럽지 아니하리오. 지금부터라도 신선을 만나서 선학을 배우겠노라고 개심하니라. 그러던 차에 갑자기 심신이 상패하여 지더니 돌연히 하늘에 올라가 신선 한 분을 만나니라. 그 신선이 네가 이제 뉘우쳐 선학을 뜻하니 심히 가상하도다. 내가 너에게 선학을 가르치리니 정결한 곳에 도장을 짓고 여러 동지를 모으라고 이르니라. 방탕자는 그 신선의 말대로 정신을 차리고 동지를 모으기 시작하였으나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방탕을 알고 따르지 않는지라. 겨우 몇 사람만의 응락을 받고 이들과 함께 도장을 차렸던바 갑자기 천상으로부터 채운이 찬란하고 선악소리가 들리더니 그 신선이 나타나서 선학을 가르쳤도다.⁵⁶⁾

이처럼 인간의 자력적인 노력과 신명의 타력적인 도움으로 후천의 인간이 탄생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 인간의 수도가 되어야만 신명의 감응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수도는 상제님에 대한 일념을 바탕으로 도덕적 자각과 타인에 대한 덕화선양을 기본으로 하여 수련으로서 육체의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지극 정성으로 할 때 신명의 도움을 얻고 나아가 신과의 조화가 이루어져 지상신선이 실현된다고 하겠다.

56) 「典經」, 교법 3장 4절

57) 「典經」, 교법 3장 16절, 여동빈의 일도 이와 유사하다.(예시 61절)

3. 地上神仙의 意義

지상신선은 대순이 지향하는 인간상이다. 이 지상신선이 갖는 의의는 대략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神人(天人)관계의 결정체이다. 지금까지 살펴 온 바, 상고시대의 인간과 신이 점유한 상태에서 민신상분으로 나뉘어 졌지만 인간의 끊임없이 천(신)을 동경 내지는 존송해왔다. 그 방법에 있어 도교는 향외적인 신에 대한 강조를 두게 되어 신선사상을 흡수하면서 구체적인 성선 득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반면, 유교는 천을 인간의 덕성으로 내재화시켜 다시 천인합일 사상을 표출하였다. 하지만 송대 이후로 천의 주재성, 인격성을 탈각시켜 무신론화되면서 한축을 잊게 하였다. 도교와 유교의 갈림길도 신인의 관계설정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방법상에서도 도교는 육체의 변화를 강조였지만 유교는 정신적인 면을 우선한다. 전자가 선약, 외단 내단을 통하여 신선을 추구하였다면 후자는 천리를 자각하여 그에 맞는 윤리도덕으로서 그 법칙을 준수하여 성인이 되려는 차이를 보여 왔다. 그러나 두 종교는 어느 한면만을 강조하였기에 참다운 신인관계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그 외에도 기독교나 불교에서처럼 신중심 또는 인간중심이라는 사상이 나온 역사적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왔다. 이러한 점에서 대순의 지상신선은 신인관계의 올바른 관계성 정립의 의의를 갖는다. 신과 인간은 음양의 관계로서 상보성(相補性)을 지니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제시하였다.

또한, 지상신선은 신인관계의 원시반본(原始返本)의 형태를 띠고 있다. 상고시대의 사람과 신이 상통했던 그 원형적 모습처럼 다시 신과 인간의 더불어 함께하는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그러나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근원으로 찾은 발전 지향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신인의 상통, 합일 조화가 그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상신선은 민신잡유, 민신상분, 신인합일, 천인합일 등을 종합적으로 지양하고 시대에 맞는 창조적 모습으로의 원시반본이라 하겠다.

둘째, 각 종교를 통섭하여 후천의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지상신선에는 도교의 신선과 유교의 성인 나아가 불교의 부처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는 상제님의 몇가지 공사에 더욱 확연히 들어난다.

佛之形體仙之造化儒之凡節⁵⁸⁾

受天地之虛無仙之胞胎 受天地之寂滅佛之養生 受天地之以詔儒之浴帶 冠
旺 兜率虛無寂滅以詔⁵⁹⁾

지금까지는 관이 좁고 일이 간단하여 한가지 도만 써도 난국을 다스렸지만 앞으로는 모든 도법을 합하여 사용해야 혼란을 잡으며,⁶⁰⁾ 이를 위해 각 민족들의 이룩해 놓은 문화의 정수를 걷어 후천문명의 기초를 정하였다.⁶¹⁾ 또 선도, 불도, 유도, 서도의 종장공사를 통하여 후천의 기틀을 삼았던 것이다.⁶²⁾ 이 종교통일공사는 각 종교를 단순한 통합이나 획일적인 통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앞 구절에서 말해주듯이 선도 불도 유도는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류에게 가르침을 주었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각 종교간의 분쟁, 심지어 종교전쟁까지 일어나기도 했었다. 이는 민족적, 문화적 우열을 가리려는 데서 나온 것이지 그 본연의 뜻과는 거리가 있다. 특히 상제께서 유 불 선의 위상과 역할 나아가 그것을 통솔하는 관왕의 도를 제시하고 있다. 선도로서 포태하고 불도로서 양생하고 유도로서 육대시키며 형체와 조화와 범절이라는 특징을 설명하였다. 이는 각 종교가 대립과 갈등할 필요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

유불선이 내세웠던 신선, 성인, 부처 등의 인간상도 역시 관왕의 진리에 의해 표현되는 새로운 인간상에 통섭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대순의 지상신선은 신선, 성인, 부처를 포괄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 기존의 인간상이 정신적인 성숙과 완성을 추구했다면, 지상신선은 정신과 육체의 완성된 모습이란 점이다. 비유하자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허물을 벗는 동물이 있는 것처럼 지상신선은 지금까지 인간에서 완전하게 탈바꿈한 후천의 인간이다. 지상신선은 신과 조화된 새로운 인간상이며, 하늘이 아닌 지상에서 사는 존재이다. 그래서 현세적인 인간의 모습이다.

셋째, 인간 가치의 극대화-인존의 실현이다. 지상신선은 이전의 하늘이나

58) 「典經」, 공사 3장 39절

59) 「典經」, 교운 1장 66절 玄武經.

60) 「典經」, 예시 13절

61) 「典經」, 교법 3장 23절

62) 「典經」, 교운 1장 65절

땅을 인간보다 중시하고 우위에 두었던 것에 반해 이 지상의 인간에게 중심축이 이동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⁶³⁾

선천에는 모사(謀事)가 재인(在人)하고 성사(成事)는 재천(在天)이라 하였으되 이제는 모사는 재천하고 성사는 재인이니라.⁶⁴⁾

인존은 인간의 존엄성을 극대화한 것이다. 더욱 천과 인간의 관계의 역전으로까지 표현하고 있다. 지난 시대에는 어떤 일을 꾸미는 것은 인간이 하였지만 그 일이 성사되는 것은 하늘에 달렸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이제 하늘이 일을 구상하고 기획하고 그 일을 이루는 역할은 인간의 몫이며 그러한 시대가 인존시대이니 곧 후천선경을 이룬 것이다. 즉 인간이 주체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는 세상의 인간 모습이 지상신선이며 그 가치를 인존이라 한다. 바로 인간주체의 궁극적 실현을 의미한다. 인간이 개조된 지상신선의 실현은 이전처럼 몇몇의 성인이나 혹은 계시자, 깨달은 자를 통해 그를 표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개개인이 주체가 되어 시대를 이끌어 가게 된다.

대순진리회의 목적은 도통진경이라 밝히고 있다. 도통진경은 개인의 도통과 사회의 진경을 모두 이룩한 상태이다. 이것은 한 개인이 도에 통하는 득도의 차원을 넘어서 도가 온 우주에 밝혀지고 인간 모두가 깨여있음을 뜻한다.⁶⁵⁾ 지상신선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도통군자이니 과거 현재 미래의 시방세계에 통달하고 불로불사의 장생과 지혜가 밝아져 밝게 드러난 미래의 인간의 참 모습이겠다. 진경은 이러한 후천선경세계를 묘사하고 있다.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 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

63) 「典經」, 교법 2장 56절

64) 「典經」, 교법 3장 35절

65) 「典經」, 예시 14절, 文明開花三千國 道術運通九萬里.

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⁶⁶⁾

신선, 이것은 인류의 영원한 바람이었다. 그러나 이제 막연한 소원이 아니라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의 인간상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상제께서 대순진리에 의한 종교적 법리로 인간을 개조하면 정치적 보국안민과 사회적 지상천국이 자연히 실현되어 창생을 구제할 수 있다는 진리를 선포하였고 이에 수반된 삼계공사를 펼치므로 가능하게 되었다.⁶⁷⁾ 그리고 이 공사를 담당하고 선경세계의 지상신선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V. 結論

흔히 신선사상은 전국시대나 진한시기에 중국을 중심으로 발생되었고 이후 도교의 핵심적인 교의가 되어 중국민족의 잠재의식층을 형성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역사를 소급해서 올라가보면 신선사상은 상고시대의 신인관계에서부터 그 맹아가 싹트고 있었으며, 주로 고대 동의문화권에 강하게 퍼져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신인관계는 도교와 유교의 인간관이 분기되는 원인 중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도교의 신선이나 유교의 성인은 상위적 지향점은 비슷하지만 현실의 인간을 변화시키는 방법상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교가 정신적인 면을 강조하고 윤리와 도덕의 교육으로 이상적 인간을 목적으로 했다면, 도교는 인육의 제거를 위해 기질과 육체의 수련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신인관계에서도 유교는 하늘에서 인간덕성으로의 전환을 갖게 되었고 송대 이후 이점이 강화된다. 도교는 여전히 신을 상정하고 있고 신에 준한다는 신선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러나 두 종교 어느 일면에 치우쳐있

66) 『典經』, 예시 81절

67) 『大巡眞理會要覽』, 10-11쪽

고, 입각점의 차이로 인해 각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대순진리의 지상신선은 본연의 천인, 신인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신인의도의 바람직한 관계 속에서 신과 인간의 상통, 합일 나아가 조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려는 방법에서도 인간의 주체적인 노력을 중심으로 신명의 힘까지 얻을 때야 비로소 그 이상이 실현된다고 하겠다. 선경세계는 곧 인간과 신 모두의 성공이자 가치의 실현이다. 또한 각 종교를 통섭하고 정수를 모아 후천문명의 기초를 다진 공사에서 알 수 있듯이 지상신선은 기존 종교의 이상적 인간상이 녹아져 있고 새롭게 창조되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간의 가치가 극대화된 인존의 실현이란 것이다. 이상(理想)만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만이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될 수 있고 또 지상에 펼쳐지는 세계가 바로 지상선경(地上仙境)이다.

【참고문헌】

『典經』 『大巡眞理會要覽』

『國語』 『尙書』 『周易』 『孟子』

『山海經』 『抱朴子』

『史記』 『漢書』

『東經大全』 『龍潭遺詞』

杜正勝 篇, 『中國上古史論文選集』 (上), 華世出版社, 民國68.

勞思光, 『新編 中國哲學史』, 삼민서국, 1985(2판).

卿希泰, 『中國道教史』 (1), 사천인민출판사, 1996.

신지영 이정재 옮김, 『國語』, 흥익출판사, 1998.

이능화, 『韓國道教史』, 보성출판사, 1996.

鄭在書, 『不死의 신화와 사상』, 민음사, 1994.

구보 노리따다, 최준식역, 『道教史』, 분도출판사, 1990.

酒井忠夫 外, 최준식역, 『道教란 무엇인가』, 민족사, 1990.

小柳司氣太, 김낙필역, 『노장사상과 도교』, 시인사, 1994.

宋恒龍, 『韓國道教哲學史』,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87.

車柱環, 『韓國의 道教思想』, 동화출판사, 1986.

도광순 편, 『神仙思想과 道教』, 범우사, 1994.

유병덕 편, 『東學 天道教』, 교문사, 1993.

한국도교사상연구회 편, 『道教와 韓國思想』, 아세아문화사, 1994.

한국도교사상연구회 편, 『道教思想의 韓國的 展開』, 아세아문화사, 1989

한국도교문화학회 편, 『道家思想과 韓國道教』, 국학자료원, 1997.

한국동양철학연구회, 『동양철학』 5집, 1994.

동양철학연구회, 『동양철학연구』 6집, 1985.

서울대 종교학연구회, 『종교학 연구』 16집, 1997.

이경원, 『한국 근대 천사상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8.